

## 사목 공지

### 김민수 야고보 신부님 이임미사 및 송별식

- 일시: 1월 5일(주일) 10:30am 미사 중
- 그 동안 수고해주신 김민수 야고보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4년, 새해 맞이하여 전교우 성경 읽기

- 2014. 1월 1일부터 전교우 영적, 내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안내 유인물 참조)

### 지구장 회의: 1월 5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예비자 입교식

- 일시: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중
- 환영식: 10:30am 미사 후, 가브리엘 방

### 혼인 교리강좌 (년2회)

- 일시: 2월 16일(주일) 12:30pm-6:00pm, 미카엘 방
- 대상: 2월-8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결혼 예정자

### 미사 중 “평화의 인사” 시 상호존중 캠페인 으로 인사

-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영축명

- 1월 6일(월) 영명축일을 맞이하는 장 메리노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하식: 1월 5일(주일) 교중미사 중

### 우리 본당이 가치관을 세우고 확립해야 할 덕목들

1. 서로 존중하고 칭찬을 생활화 합니다.
5.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2.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합니다.
6.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3. '에'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합니다.
7. 인간적인 친교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4.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8. 서로를 해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 송년, 새해 감사헌금: \$ 7,277.25

### 2014년 교무금 신립 접수: 사무실 앞

### 성탄 판공 성사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공지

### 성령기도회 철야기도

- 일시: 1월 8일(수) 7:30pm 미사 후
- 주제: 아버지

### 꼬미시움 평의회: 1월 11일(토) 7:30pm 미사 후

### 달력의 스마일 틀니치과 전화번호를 (8544 1770) 으로 정정합니다.

### 단체모임

- 전례 문과회: 1월 5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성소 후원회 기도모임: 1월 11일(토) 9:30am 미사 후 (성체조배식)
- 쌍두스 성가대: 1월 12일(주일) 9:00am 미사 후
- 전례해설단: 1월 12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연령회: 1월 12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요셉회: 1월 12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울뜨레아: 1월 12일(주일) 12:30pm, 성당

## 금주 성경 말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마태 19-21	마태 22-24	마태 25-26	마태 27-28	마르 1-3	마르 4-6	마르 7-9
말씀: 남을 심판하지 마라. (마태 7.1)						

### 오늘의 중식 메뉴: 콩나물 비빔밥(11지구)

## 2013' 상호존중 캠페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감사헌금	기 타	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 21,809.70	\$ 725.60	\$ 7,527.25	\$ 98,774.11	\$ 30,062.55	\$ 36,899.95	\$ 91,936.71

## 감사,기도, 전출입

### 감사:

### 전출입:

## 주일 봉사

날짜	5/1	12,19/1	26/1,2/2	9,16/2
지구	7지구	8지구	9지구	10지구
전례, 커피, 청소 9:00am, 10:30am 미사 중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미사 참례수: 1,850 명



##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주보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주보 성인: 한국 순교성인과 성 스타니슬라오

발행일: 2014년 01월 05일

주 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http://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사 무 실: 8756 3333(대표번호) 8756 3334  
8756 3335(FAX)  
사 제 관: 8756 3330(주임신부), 8756 3331(제1보좌신부)  
8756 3332(제2보좌신부), 9558 3498(고해신부)  
수 녀 원: 8756 3336  
주임신부: 김동규 미카엘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한

평 일	토요일	주 일
월: 7:30pm 화: 7:00am 수: 7:30pm 목: 9:30am 7:30pm 금: 9:30am	9:30am(신심미사) (첫째주, 둘째주) 4:00pm(초등부) 5:30pm(중고등부) 7:30pm(청년부)	7:00am 9:00am <b>10:30am(교중)</b> 5:00pm(City) 5:30pm(영어) 7:30pm

## 주님 공현 대축일

제1독서: 이사 60,1-6

◎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복음: 마태 2,1-12

제2독서: 에페 3,2,3-5-6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전례성가: 입당: 487 / 봉헌: 111, 105 / 성체: 506, 504 / 파견: 100

화답송:



## 평일미사(독서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06일(월)	1요한 3,22-4,6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주리라.	마태 4,12-17,23-25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네. 아버지의 외아드님,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의 영광을 보았네.
07일(화)	1요한 4,7-10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마르 6,34-44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당신 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으로 보내셨네.
08일(수)	1요한 4,11-18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마르 6,45-52	생명이 나타나셨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네.
09일(목)	1요한 4,19-5,4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루카 4,14-22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10일(금)	1요한 5,5-13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루카 5,12-16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네. 하느님이 당신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네.
11일(토)	1요한 5,14-21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요한 3,22-30	주님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네.

생활 속의 복음

## “주님 공현 대축일 - 새해의 소망”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똑같이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연초에 바라보는 태양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의 소망이 담긴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초에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가곤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며, 새해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연초의 일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설악산 대청봉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교회는 새해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주님 공현 대축일’로 지냅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실증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매일 만나는 자연과 사람 안

몇 번의 실패 끝에 산 정상에서 완벽한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녘에 서서히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바다 저편에서 장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감동이라기보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대자연 앞에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저절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문득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로 다를 것입니다.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느님을 뵈 새해에는 이러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탈출 3,5-6)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그것은 거룩함 즉 ‘성스러움’의 실제적인 체험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아주 가끔 체험하는 하  
느님 체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느님 체험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절대자와 떨어지는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하시도다’라  
는 말의 의미를 ‘당신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무력한  
인간이 두렵고 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차원석신부  
노원성당 주임

## 예비자 교리

8월반	주 일	10:10am (김 야고보 신부님)
9월반	토요일	5:00pm (주임 신부님)
		추후공지

## 버스 운행 시간표

	리드کم역 ⇨ 성당	성당 ⇨ 리드کم역
토	오후 3시 10분	오후 6시 40분
주일	오전 8시 20분, 8시 45분	오전 9시 미사 후
	오전 9시 50분, 10시 15분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함께 기도합시다**

권영해 베네딕토	김태영	안경수 필립보	이용수	전인혜 줄리아	한 폴
김금선 마리아	김환영 마르타	여수례 마리아	이종운 라우렌시오	정명화	황선용 크리스티나
김광호 게오파스	김영훈 베드로	이래교 안젤라	이혜영 프란체스카	정 바실리오	최성규 요한
김영복 세실리아	고일순	이성준 안드레아	유기현	정영희 켄마	
김연심 프란체스카	노수진 베로니카	이애자 오틀리아	임순자 마리아	정현옥	
김지현 프란체스카	박인희 베로니카	이억석 바오로	임혜정	정철주 까리따스	
김중훈 돈보스코	석송 베드로	이영민	은동현 유스티노	조규정 이레네오	
김태균	신병각 가브리엘	이은정 오틀리아	장춘자	최춘자 안나	

- 기도지향을 기재하여 봉헌함에 꼭 넣어 주세요. -  
(이름과 세례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에 새로 기재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48]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6) 교회의 특징 (3)**

넷째로,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교회는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다. 사도성'은 사도유래성, 사도전승, 사도적 직무 및 봉사, 사도적 계승 등을 뜻한다. 사도유래성은 교회가 사도들을 주축로 하여 세워졌고 사도들로부터 나왔으며,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있고 사도처럼 세상에 파견되었음을 뜻한다. “복음은 내가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것입니다.” (1코린 15,3) 복음은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아 사람들에게 전해준 교회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전승은 사도로부터 시작되어 계승되고 있다. 교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유한 유산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을 보존하고 전한다. 이 전승을 교회가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말로써 전하기도 하여 성경과 성전(거룩한 전통)이 생겨난 것이다.

사도를 계승하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 불린 자로서 가톨릭 교회의 사도 유래성과 사도적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구현하는 봉사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사도’는 ‘파견된 자’이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를 증언하기 위해 파견된 자이다. 파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근본 특징이다. 성부로부터 파견되신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는 분이 되셨다. 파견에 의해 제자들은 사도로 변신하였다. 그들은 복음선포와 구원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권한과 사명을 부여 받았다. 교회는 사도들이 주님에게서 전해 받고 전해 주는 바와 그들이 가르친 바 그리고 그들이 부여 받은 선교사명 위에 세워졌으므로 사도직처럼 권한과 사명을 갖고 파견되었다. 교회가 사

주님을 직접 만나 함께 생활하였던 사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과업과 직분은 남아 있다. 사도는 사라졌지만 사도적 직분은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고 있다. 사도적 직분이 남아 있으므로 사도적 봉사도 남아 있다. 사도적 직분과 봉사를 통하여 사도 유래성과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진다.

신경은 교회의 사도성과, 그리고 사도직의 계승을 재확인하는 기회이다.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교회는 사도적 계승을 공적으로 고백한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선교에 의하여 모인 새 하느님 백성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 작업에 의해 지어진 성령의 성전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봉사에 의하여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온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사도들에게 넘겨준 ‘하늘과 땅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언과 지속적으로 일치되어 있을 때, 아울러 사도들의 봉사와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다.” (사도 2,42) 사도유래성은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충실

단일성, 성성, 보편성, 사도성 등 네 가지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나 아니냐를 가름하는 척도나 기준이 된다. 그 특성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므로 천주교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교라 자부하고 있다.

[2009년 4월 26일 부활 제3주일 가톨릭마산 8면]

## 버스 봉사자

차량 문의 : 0414 488 700

2호차 (리드کم) - 토요일 봉사	1호차 (캠시)	2호차 (캠시)	3호차 (이스트우드)	4호차(리드کم)
03:10pm 리드کم, 06:40pm 성당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출발	주일
01월04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근 사도요한 01월11일: 임중훈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1월18일: 하춘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1월25일: 최준문 아오스팅, 김예환 스테파노 02월01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근 사도요한	01월05일: 01월12일: 고영식 파스칼 01월19일: 정성주 마르코 01월26일: 양재봉 다니엘 02월02일:	01월05일: 최상현 베드로 01월12일: 유시환 베드로 01월19일: 신영대 요셉 01월26일: 김영권베네딕도 02월02일: 최상현 베드로	01월05일: 최영수 율리오 01월12일: 최홍래실베스텔 01월19일: 김진태 앤드류 01월26일: 최홍래실베스텔 02월02일: 최영수 율리오	01월05일: 문석주 필립보 01월12일: 양명숙 모니카 01월19일: 최 안젤라 01월26일: 서용호 마태오 02월02일: 문석주 필립보